

미국 기독교 철학의 동향

--1995년의 경우--

신상형(안동대학교)

1. 연구 요약문

미국의 건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비롯되었다. 이 기독교의 본격적인 사상적 자립은 기독교 철학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기독교 철학의 특징을 횡단적으로 섭렵, 도식화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1995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한다. 미국 철학을 기독교적 시각을 통해서 봄으로써 미국 사회의 심층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위해 그 전문학술지를 분석하여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철학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를 기존의 연구들과 접목하여 일관성 있는 흐름을 도해적으로 제시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기독교 철학의 학술적 활동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그 활동은 매우 융성하였고, 1980년대가 되면 그 결실이 상당 수준에 이르게 되어 기독교 철학은 철학 영역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적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계기를 맞는다. 기독교 철학은 어떤 한 분야를 특정한 방식으로 펼치는 방법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각 분파철학의 영역에서 정치한 논의를 펼치는 보편적 담론의 형식을 갖는다. 이런 점이 철학 내의 여타 다른 분파이론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점이다. 기독교 철학 담론의 사태들을 섭렵하는 일은 비단 미국 사회의 철학적 경향들을 파악할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 세계 기독교 철학의 특색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계기를 이미 갖고 1990년대의 미국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이런 계기의 계속적인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독교적 시각을 통해 미국철학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철학 작업은 동시에 한국에서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기독교의 발전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아직 정착된 가치관을 만들어 내는 데는 미숙하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역기능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악에 연루되는 낙후적 모습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철학의 활성화는 사회의 순기능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 기독교 철학의 분파별 내용 분류
 - * 각 분파별 흐름 분해 및 정리
 - * 철학자별 특징 파악
 - * 기독교 철학의 유형 도해
- 나. 연구 방법
 - * 1995년도 활동에 한정
 - * 전문학술지 Faith and Philosophy의 분석
 - * 논문, 서평, 신간 소개, 학술회의의 분석과 해제
 - * 전후의 관계 설명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미국의 기독교 철학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의 선도적 철학자가 되는 일군의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의 활약을 기화로 1984년에 기독교 철학의 전문잡지인 Faith and Philosophy가 창간되었고, 이후 기독교 철학자들은 미국의 철학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Swinburne(Oxford), Plantinga(Notre Dame), Admas(Yale), Alston(Syracuse), Wolterstoff(Yale)과 같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형이상학, 도덕철학, 인식론 등의 전통적인 분야 뿐 아니라, 여성학과 생명과학 논쟁 등의 최근 경향까지도 철학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독교 철학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철학은 1998년 4월에 창립된 ‘한국기독교 철학회’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 손봉호(서울대)를 비롯한 김영한(숭실대), 김성진(한림대), 강영안(서강대), 최태연, 이경직(백석대), 김유신(부산대), 신상형(안동대) 교수는 그들의 분야에서 기독교 철학적 시각을 갖고 철학적 담론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1년에 3, 4 차례 이르는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신진 학자들을 유입해 가면서 기독교 철학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기독교 학문학회의 종합학술대회(연2회 개최)에서도 ‘기독교 철학’ 세션을 만들어 기독교 철학자들의 담론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개혁신학회 등 다른 학회와의 연대를 통해 기독교적 학문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 철학은 외양적인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미국 기독교 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담론의 주제 또한 간헐적이다. 2대 회장을 하면서 기독교적 신앙의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김영한 교수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담론의 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학자들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철학자들의 지속적 토론의 활성화와 심화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기독교 철학의 담론이 풍성하고 역동적인 재생산이 가능케 되려면 철학자들 각각의 논의가 지속적이고도 초점이 모아지는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이에 가장 적절하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미국 기독교 철학회의 활동을 섭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적으로 모델화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1995년을 단면적으로 자른 활동을 도식화하고 모델화하기 위해 시도하며, 이 목적을 위해 『신앙과 철학』의 사상들을 분석, 도해하여 그 모습들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5. 참고문헌

1. *Faith and Philosophy*, Vol. 13 Nos. 1-4 (1995)
2. *Religious Studies*, Vol. 32 Nos. 1-4(1995)
3. 『기독교철학』 창간호(2005) ~ 현재
4. Peterson, M., et. al.(ed.), *Philosophy of Religion*, Oxford: OUP, 1995.
5. _____, *Reason and Religious Belief*, _____, 1990.
6. Malcolm, N., *Wittgenstein: A Religious Point of View?*,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7. Godson, E., *Christian Philosophy*, tr. A. Maurer,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93.
8. Sell, A. P. F., *Philosophical Idealism and Christian Belief*, Cardiff: U of Wales Press, 1995.
9. Mitchell, Basil, *Faith and Critic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4.
10. Yandell, K., *The Epistemology of Religious Experience*, Cambridge: CUP, 1993.